

우례시노 녹차의 재배와 수확

차나무(학명: *Camellia sinensis*)는 상록수의 차나무과에 속하며 일 년 내내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추출에 적합한 찻잎을 생산하는 공정도 일 년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첫 번째 공정은 이듬해의 풍작을 위한 유지보수로 8월부터 시작됩니다. 토양의 상태를 확인하여 차 재배에 적합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토양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시키기 위해 비료를 주고 이전 수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갈아서 토양을 풀어 공기를 넣어줍니다. 또한, 병충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여 이듬해에 햇차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9 월에는 잎을 관찰하여 잎이 상하지 않도록 전정을 합니다. 10 월에 기온이 18~19℃로 떨어지면 새로운 잎이 돌아나도록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가을 전정’이 이루어집니다. 차의 최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정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11 월에 들어서며 기온이 더 떨어지면 겨울의 추위로부터 뿌리를 지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근 논에서 막 수확한 벼짚으로 땅과 뿌리를 덮습니다. 벼짚은 잡초를 억제하고 토양에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겨울은 재배자에게 있어서 각 차나무의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묘목이 자라기 시작한 지 4 년 후에 첫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7 년에서 10 년 사이에 안정적인 수확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나무는 성장하며 매년 키가 커지기 때문에 5 년마다 지면에서 30~50cm 정도의 높이 부분에서 줄기를 다듬어 발아를 촉진합니다. 수령 35 년 이상이 된 차나무는 교체됩니다.

첫물차의 준비

‘봄 전정’은 첫 번째 수확(첫물차)을 준비하기 위해 2 월에 시작됩니다. 이는 수확 시 오래된 찻잎과 신선한 찻잎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월에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새로운 잎이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배 농가는 차밭을 관찰하여 새로운 잎이 돌아나는지 확인합니다. 차밭 주위에는 작은 선풍기를 설치하여 기온이 떨어졌을 때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묘목은 새로운 차나무를 기르기 위한 전용 차밭에 심습니다.

4 월 하순이 되면 첫 수확을 앞두고 찻잎을 가공하는 기계를 점검합니다. 이 무렵부터 찻잎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시기는 차밭마다 다릅니다. 수확 10 일 전에 검은 그물망을 차나무 위에 씌웁니다. 이를 통해 일조량을 조절하여 차의 녹색을 짙게 만들고 풍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한 번 더 비료를 줍니다.

1~3 번째 수확

우레스노의 첫 수확은 전통적으로 5 월 상순에 절정을 맞이합니다. 채엽한 찻잎은 빠르게 품질이 떨어지므로 즉시 가공해야 합니다. 수확과 가공을 몇 시간 간격으로 반복함으로써 찻잎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레스노의 다원은 각각 다른 고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된 차나무는 땅에서 뽑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수확은 보통 6 월 중순에서 7 월 초순에 이루어집니다. 첫 수확과 마찬가지로 찻잎에 검은색 그물망을 씌워 일조량을 조절합니다. 잎을 따는 시기도 신중하게 관찰됩니다. 이 수확으로 채엽된 잎은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키가 큰 차나무는 해충의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시기에 전정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확은 7 월 하순에서 8 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수확이 완료되면 우레스노의 차 시즌은 끝이 나고 이듬해 수확을 위해 수확 과정이 재개됩니다.